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0년 2월 28일(금)
... (율력 2월 5일) ...

Пятница
28 февраля 2020г.
№ 8(116875)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오는 3월 일 러시아에서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하는 마슬레니차 축제의 마지막 날, 사할린주 내 거의 모든 도시와 큰 마을에서는 블린 먹기, 러시아 전통 민속놀이, 공연 등을 위주로 하는 행사들이 개최된다.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단신

3월 1일, 겨울 전송·봄 마중

2월 24일, 월요일부터 러시아에서 마슬레니차 주간이 펼쳐졌다.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하는 이 축제 기간 동안 사람들은 꼭 블린(러시아식 팬케이크)을 먹는데 마지막 날, 3월 1일, 일요일에는 사할린주 내 거의 모든 도시와 큰 마을에서는 블린 먹기, 러시아 전통 민속놀이, 공연 등을 위주로 하는 행사들이 개최된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주로 가까린 휴식공원 웨르호예호숫가에서 수백 명의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행사가 펼쳐지며 전통적으로 이날 축제는 겨울의 상징인 썰매인형 태우기로 막을 내린다.

마트위엔코 러시아 연방평의회 의장과 리마렌코 사할린주 지사, 사할린주 사회경제발전 문제 논의

2월 25-26일 러시아 연방평의회(연방의회 상원)에서 사할린주의 날 행사가 펼친 가운데 연방평의회 알렌찌 마트위엔코 의장과 사할린주 알레리 리마렌코 지사가 만나 사할린주의 사회경제발전 문제를 논의했다.

연방평의회 의장은 상원에서 개최하는 연방 행정지역의 날 행사들이 지역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지역의 문제점 해결에 연방평의회 지원이 받을 수 있는 기회라며 사할린주는 러시아의 주요 지역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사할린 주지사는 평의회 지원이 필요한 방면으로 주택, 도로건설, 전기망, 교통 제반시설 현대화 등을 언급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러시아 근골격계 장애인 알파인스키 챔피언대회 열려

지난 25일(화)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러시아 근골격계장애인 챔피언십 알파인스키 대회가 열렸다. 이날 개막식에서 사할린주 정부 세르게이 나우모브 부총리를 비롯한 관계 인사들이 선수들을 환영하며 인사말을 전했다. 경기에는 러시아의 사할린주,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비롯한 10개 지역의 대표선수 15명이 참가한 가운데 회전, 대회전, 슈퍼대회전으로 구성된 수퍼 복합 종목에서 실력을 발휘하게 된다. 경기는 29일까지 진행된다.

아이스하키 아시아 리그, <사할린>과 <안양 한라> 공동 우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으로 아이스하키 아시아리그 파이널이 취소됐다고 전해졌다. 결승에 진출한 <사할린>팀과 한국의 <안양 한라>팀이 공동 우승을 차지했다. 아이스하키 아시아리그는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29일에 시작될 예정이었던 2019-2020시즌 아시아리그 플레이오프 파이널(5전3선승제)을 취소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관중, 선수, 관계자들의 안전을 고려한 선택"이라고 전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압로라>항공 전세기로 사할린 주민들을 서울로부터 긴급 이송

2월 26일 세워진 러시아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작전본부의 회의 끝에 타치아나 골리코바 러시아 부총리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국, 이란, 이탈리아의 상황에 대해 우리가 보유하고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하여 러시아 연방에서 이 점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평가했으며, 우리는 3월 1일 00시 부터 <아에로플로트>와 자회사인 <압로라>를 제외한 기업이 수행하는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항공기 운항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대한민국 영토로부터 러시아의 모든 시민을 이송할 때까지 <압로라>항공은 전세기로 운항을 수행할 계획이다. <아에로플로트>는 모스크바로 러시아 국민을 이송할 것이며 대한민국에서 입국하는 러시아 국민들은 모스크바 세레메체예보 공항 F터미널을 거쳐 입국하게 된다.

<압로라> 항공은 월요일을 제외한 일주일 내내 서울로 운항한다.

올해 사할린 국책 사업의 일환 25km 도로 포장 계획

사할린주도로교통부 지도부가 국책 사업인 '안전한 고품질의 도로 사업' 전국 영상회의에 참여했다. 러시아 도로공사 대표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도로 건설 준비 단계에 대해 논의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앞서 사할린과 쿠릴 열도의 도로 포장의 비율을 러시아 평균 수준으로 끌어 올릴 것을 지시한 바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주 및 지역 도로를 공사해야 하는데 이 도로 공사 중 상당 사업이 국책 사업이다.

올해는 국책 사업에 따라 사할린에서 8km가 넘는 지역 도로와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내 17km에 달하는 도로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알레리 스피첸코 도로교통부 장관 직무 대행은 13개의 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며, 니콜스크예, 소콜, 짜흐메네워 마을을 지나는 도로들이 정비되고, 달네예 및 올로츠키 마을 구간, 노워알렉산드롭스크지역과 사나토르노예 마을 구간, 2첸트랄니 거리(이완 쿠로파트코 거리와 철길 구간 등), 주 중앙도시 내 도로를 포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포그라니츠나야 거리의 일부인 콤사몰스카야 거리부터 고리키 거리까지의 구간 또한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했다.

15개의 현장에서 공사가 개시되고 있

다. 216km길이의 네벨스크 - 토마리 - 사흐쵸트스크 공항 노선의 고속도로에 자동차 자동 중량 측정소가 설치된다. 이 구간의 일부인 코스트롭스키에 마을에는 신기술을 적용한 대대적 공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공사 중에 LED 자동 조명과 내마모성을 지닌 열가소성 수지를 사용한다.

또한 2020년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 입구의 대대적인 정비도 계획되어 있으며, 계약에 따라 2023년까지 유지 보수할 예정이고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절반 이상의 시설이 이미 계약 수주되었으며, 나머지는 곧 입찰 절차가 마무리된다.

오늘날 사할린의 도로의 총 길이는 약 5000km인데 이 중3분의 1이 포장도로이다. 국책사업의 목표는 향후 5년 간 표준화된 지역 도로의 비율을 55%까지 늘리는 것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내 도로의 39% 표준에 적합한 도로이며, 2024년까지는 이 비율이 85%까지 확대될 방침이다.

국책사업 '안전하고 품질 향상된 도로'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사할린 지역에서 총 27km 이상의 15개 구간의 지역 도로가 개건 및 보수되었다.

새고려신문

2020년 상반기 신문주문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0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95루블리 15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PP575입니다. (본사 편집부)





본지 2020년 2월 21일호 4면에 소련 영웅 김 예브게니 이와노비치에 대한 러시아어 기사가 게재되었다. 이번에는 이 기사를 한국어로 신기로 했다.

2020년 1월 28일 러시아 대외정보국 세르게이 나리시킨 국장이 러시아 안보 확보에 크게 기여한 비밀 첩자 7명의 이름을 밝혔다.

"그들은 러시아 영웅 유리 아나톨리에위치 셉첸코, 소련 영웅 예브게니 이와노비치 김, 소련 영웅 미하일 아나톨리에위치 와센코브, 러시아 영웅 위탈리 왜채슬라보위치 네텍사와 그의 아내 타마라 이와노브나 네텍사, 블라지미르 이오시포위치 로호브와 위탈리 알렉세예위치 누이킨이다" 라고 <러시아의 오늘>국제통신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리시킨 국장이 밝혔다.

2019년 12월에 나리시킨 국장이 러시아 대외정보국이 2020년에 100주년을 맞아 7명의 '특별 예비 직원' 이름을 공식적으로 공개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대외정보국이 여러 유명 정보 요원을 한 번에 비밀 해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예브게니 이와노비치 김의 증손자가 1942년-1953년 사할린(샤호초르스크)에서 거주했던 자기 증조부(형제 6명중 막내)에 대한 이야기를 신문사에 보냈다. 이 내용은 아래에 게재한다. (본사 편집부로부터)

세대로 이어짐으로 끊어지지 않음

저의 작은 증조할아버지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을 김 왜채슬라프입니다. 저는 모스크바 제 2120호 카제트학교(사관학교) 8학년생입니다. 사관학교에서 연령에 맞는 심리와 정신적 신체적 능력 개발과 완성을 위한 양질의 교육을 받는 것이 조국에 대한 봉사이자 국민에 대한 의무와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소련의 영웅인 예브게니 이와노비치 김 대령은 저의 작은 증조할아버지이며 우리 가족은 그에 대한 역사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친할머니 엠마로부터 듣게 되었습니. 친할아버지 아나톨리(김 예브게니의 이와노비치의 조카)와 엠마 할머니는 영웅 김 예브게니를 기리기 위해 저의 아버지의 이름을 예브게니로 지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 김 예브게니 이와노비치(1978년까지는 한국 이름 김용철로 사용)1932년 한국 경남 거창 농촌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960년 고등교육기관인 즈다노브 레닌그라드 국립대학의 동양학부(일본어 전



공)를 졸업하였고 그 다음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소련 국외정보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아카데미를 졸업 후 정규 근무를 위해 모스크바로 이주하여 소련 국가보안위원회 제1 본부에서 일하셨습니다. 1962년부터 첩자로서 작전과에서 근무하였고 스페인어, 영어, 일본어, 한국어에 능통하셨습니다. 모스크바에서 근무할 때 막달리나라는 우크라이나 여성을 만나 결혼 하여 아들을 낳아 '유라'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1966년에 예브게니 김을 복잡한 첩보작전 상황을 가진 나라에 첩자로 보냈다. 폭넓은 시야와 훌륭한 조직력, 분석력으로 자신을 고도의 전문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직원으로 평가하며 자신의 업무적 특징은 용감함과 단호함, 냉철함, 사교성, 진취성, 재치와 기지를 들 수 있

다."고 대외정보국에서 밝혔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일본과 쿠바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일본에서 근무하실 때 그는 러시아에서 외동아들이 물에 익사했다는 소식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아들 사망을 받아들이지 못한 아내 막달리나라는 이혼하셨습니다. 소련으로 돌아오실 때 증조부는 계속 소련 보안위원회의 중앙 본관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작은 증조할아버지는 레닌 훈장, 붉은 별 훈장, <조국에 대한 공로> 4급 훈장, <용기에 대한> 메달, <정보국의 명예직원>, <정보국에 대한 근무> 등 메달과 훈장을 받으셨습니다. 1987년 12월 21일 소련 최고 소비에트 연방 상원 의원에 의해 '공무의 수행에 나타난 용기와 영웅주의'에 대해 소련 국가보안위원회 대령인 예브게니 이와노비치는 (Evgeny Ivanovich)는 소련의 영웅 명칭과 함께 레닌 훈장과 <황금 별> 메달(번호 11562)을 받으셨습니다. 엠마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증조할아버지께서는 모스크바

에서 거주하였으며 아주 겸손하신 분이었습니다. 직장에서 차량을 제공했지만 거절하시고 늘 공공 교통을 이용하셨습니다. 1998년 11월 12일 할아버지께서는 퇴근하는 길에 교통사고(뺨소니)를 당해 사망하셨습니다. 근무상 비밀처리로 돼 있는 증조부의 장례식에는 동포(가족, 친척, 친구) 9명만이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묘지에서 돌아온 후 대외정보국 본관 강당에서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김 영웅을 추념했습니다. 저의 증조부는 모스크바 트로예쿠로브공동묘지에 안치되었습니다. 묘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밀 처리로 돼 있었기 때문에 비석에는 사진도 새겨줄 수 없었습니다. 대신 소련 국가 영웅별이 새겨져 있고 묘의 오른쪽에는 일본에서 가져온 관목이 자라고 있습니다. 영웅 할아버지와 그의 가족에 관한 정보는 공식적으로 최대 30년 동안 공개되지 않았습니. 그의 주상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에 대한 추억

은 우리 가족과 친척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성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의 위상을 존경합니다. 나는 모스크바 생도이며 조국에 대한 나의 의무는 공부를 잘하고 동료들 앞에서 존엄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는 생도의 명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나의 증조부 김 예브게니 이와노비치의 전통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김 왜채슬라프, 모스크바 사관학교 학생 편집부로부터: 김 예브게니 이와노비치에 대한 러시아어 본문을 게재된 후 본사는 영웅에 대한 여러 새로운 정보를 접하기 시작했다. 자료가 확보된 후 새 기사 작성 기대.



김 예브게니 이와노비치에 대한 러시아어 본문을 게재된 후 본사는 영웅에 대한 여러 새로운 정보를 접하기 시작했다. 자료가 확보된 후 새 기사 작성 기대.

이모저모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진행된 세계 합창 챔피언대회에서 사할린팀 우승

2월 25일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제1 중앙음악학교 특별 상급생 합창단 '가르모니아(조화)' 우승팀이 돌아왔다. 2월 19일-23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세계 유·청소년 합창대회에서 사할린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명망 높은 합창 경연대회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를 대표하여 23명의 중고생 합창단과 교사3명이 참가했다. 교사들은 예술감독의 예게니아 구로와, 반주자의 나제즈다 시네오코와 잔나 노즈키나이라고 유즈노사할린스크시행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고급 자격을 지닌 합창단 예술지도교사이자 사할린문화재단 수상자인 예브게니아 구로와 말에 따르면 <가르모니아(조화)>합창단의 챔피언급 합창대회 참가는 처음이라고 했다.

"대회 참가가 우리로서는 대단히 긴장되었고, 영광스럽고도 책임감이 느껴졌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우리 부문에서 12팀이 참가했다.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학생들은 노련했다. 합창 경연의 진행 방식은 복합식으로 진행되어 1/8, 1/4, 준결승, 최종 결승의 서바이벌 방식이었다. 경연 단계마다 우리의 프로그램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클래식곡에서 현대곡에 이르기까지 8개의 러시아곡과 외국곡을 선정해 준비했다. 주요 심사위원들로부터는 '떠오르는 별'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고 수석 심사원으로부터 특별상을 수상했다."며 예브게니아 구로와 감독이 소회를 전했다. 합창 챔피언대회 주최로는 '인터 아스펙트' 주 문화국제협력센터,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 음악원, 알렉산드르 이와노비치 게르첸 페테르부르크 국립 연극, 음악 무용대학, 엘레나 오브라초와 국

제 음악아카데미,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교육 사범대 등이 나섰다.

Сахалинцы стали победителями хорового чемпионата мира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25 февраля в островную столицу вернулся коллектив-триумфатор старшего специального хора "Гармония" ДМШ №1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Ребята стали победителями VII детско-юношеского хорового чемпионата мира, который прошел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с 19-по 23 февраля.

Южно-Сахалинск на престижном конкурсе представляли 23 ученика средних и старших классов и три педагога: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Евгения Гурова, концертмейстеры Надежда Синеок и Жанна Ножкина, сообщила пресс-служба мэрии города.

Как рассказала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коллектива, преподаватель высшей квалификационной категории, лауреат сахалинского фонда культуры Евгения Гурова, хор "Гармония" впервые участвовал в чемпионате такого уровня.

— Это было для нас очень волнительно, ответственно и почетно. В нашей номинации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было 12 коллективов. Это опытные ребята из Москвы, Северной столицы. Хоровой чемпионат предполагает сложную форму проведения, это 1/8, 1/4, полуфинал и финал на выбывание. Поэтому произведений нужно было привезти много, чтобы от конкурса к конкурсу наша программа не повторялась. Мы подготовили восемь произведений русских и зарубежных авторов — от классики до современных... Нам было очень приятно получить самую высокую оценку основного жюри и специальный приз от почетного жюри конкурса — восходящую звезду, — поделилась своими впечатлениями Евгения Гурова.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чемпионата выступили центр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области культуры "Интер Аспект",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Институт музыки, театра и хореографии РГПУ им. А.И. Герцена, Международная академия музыки Елены Образцовой,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ое музы-

кально-педагогическое училище и др.

사할린, 제 13 회 북방소수민족 원주민 축제 개최

사할린에서 제13회 북방 소수민족 원주민 축제가 개최된다. 이 행사는 4년에 한 번 진행되는데 올해 3월 21-22일에 개최되는 행사의 지역으로 노글리키 구역이 선정되었다. 창작 및 요리 경연, 북방 만능스포츠대회가 참가자들을 기다린다.

축제에는 오하·스미르니흐·티몹스코예·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포로나이스크 구역 및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단체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개막식은 지역 레크리에이션센터에서 개최되며 경기 행사장은 티미강과 노글린카강 부근에 배치된다. 예술 창작축제에 민속 예술단, 솔리스트, 장식 및 소품 공예 장인, 화가, 민속 문화센터, 부족 산업 공동체 대표들이 모두 연합했다.

우리 경연 참가에 특별히 심사도 진행하는데 심사 위원들은 식탁의 구성과 미적 감각, 요리의 조합, 맛, 색깔, 향기, 음식의 정통성 등에서 평가를 한다.

북방 종합경기의 일환으로 사할린 주민들은 개 썰매와 멀리 뛰기, 세 번 뛰기, 봉 들고 산지 코스 달리기, 도끼와 노끈 투척 등, 이외에도 사할린 주민들은 다른 스포츠 종목 중 활쏘기나 줄다리기, 전통 씨름에서 자신의 실력을 겨루어볼 수 있다.

민족 경연의 우승자들에게는 메달과 상장, 상품권을 수여한다. 축제 경기에는 북방소수민족 원주민 대표자 140여 명의 참가할 거라 전망한다고 주 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йдет XIII фестиваль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йдет 13-ый фестиваль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Его организуют каждые четыре года. Площадкой для праздника, который состоится 21-22 марта, выбран Ногликский район.

(8면에 계속)

체호브 관련 미술 작품 경연대회, 대상에 나탈리야 키류히나, 인기상에 조성용 수상

지난 1월30일 안톤 체호브의 탄생 160주년과 체호브의 사할린 방문 130주년을 맞아 유즈노사할린스크 주 미술박물관에서 제3회 <사할린, 체호브에 대하여> 미술경연 작품 전시회가 열린 가운데 작품 60여 점이 출품되었다.

2월 20일 미술경연 발표 및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대상에는 사할린에서 잘 알려진 나탈리야 키류히나 러시아화가동맹회원이 차지했고 부상으로 체호브 고향지 방문 여행권을 받았다.

<주제 우수 묘사상>은 포로나이스크 화가 타마라 코롤료와가 받았고 <그래픽 부문>에서는 올레샤 콜로소와(유즈노사할린스크)가 우승했다. 사할린 동포 조성용 화백은 <회화작품 부문>에서 우수한 동시에 방문객들로부터 인기상의 영광을 얻었다.

전시회 관람은 3월 2일까지 계속되며 다음 체호브 관련 경연대회는 2025년에 개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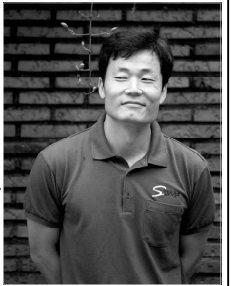
(취재: 이에식 사진기자)



김남중의 언제나 동화처럼

아껴 둔 과자

몸에는 안 좋은데 입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 어른들에게 술과 담배, 아이들에게 과자다. 알면서도 아이들에게 인생의 즐거움을 뺏을 수 없어 종종 과자를 준다. 입맛도 유행 따라 변하는지 아이들은 아빠가 좋아하는 과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혼자 먹게 되는 과자가 있다. 샤브레(Sable)를 보면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



어릴 적 남한에서 가장 큰 산인 지리산 밑 외갓집에 갔을 때였다. 어머니와 함께 혼자 사시는 친척 할머니를 찾아갔다. 할머니는 애기가 애기를 낳아왔다며 어머니를 쓰다듬었고 갓 나온 새끼 고양이를 받듯 나를 어루만졌다.

어머니가 부엌에 간 사이 할머니가 무릎을 쳤다. 애기손님이 왔는데 정신이 없어서 대접을 못했다며 주춤주춤 벽장문을 열고 더듬더듬 과자를 찾아냈다. 할머니는 절반 정도 남은 샤브레를 꺼냈다. 아껴 놓은 거라고, 다 먹으라고 할머니가 흐뭇하게 웃었다.

샤브레는 이름처럼 모래를 뭉친 듯 거칠지만 톱 부러뜨려 씹으면 달콤하게 녹는 과자다. 버터향이 은근해서 군침이 돈다. 하지만 할머니의 과자는 오래되어 눅눅했고 향도 희미했다. "어서 먹어, 어서!"

할머니가 채썬했지만 나는 과자를 먹을 수 없었다. 과자 뒷면에 초록색 곰팡이가 여기저기 자라 있었다. 다른 걸 골라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망설이다가 과자를 손가락으로 부셨다. 어떻게든 소리를 내려고 힘주어 가루로 만들었다. 할머니 얼굴이 더욱 환해졌다.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의 웃음은 할머니의 마음처럼 따뜻했다. 할머니는 남은 과자를 내 주머니에 넣어 주었다. 다음에 또 놀러 오라며 다시 한 번 내 얼굴을 더듬었다.

그 집에 다시 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가끔 샤브레를 먹을 때면 눈을 감는다. 평생 캄캄한 세상을 살았던 할머니에게는 이 맛이 몇 배나 더 달콤했을 것이다.

광주에서 김남중

한국 항공사 두 곳이 사할린행 항공편 취항을 검토 중

제주항공과 진에어 항공사 대표들이 사할린 관광홍보센터의 초청으로 사할린 지역을 방문했다. 이들은 사할린주를 관광의 매력을 지닌 곳이라고 했다.

제주항공은 보잉 737-800기 25대를 보유하고 있고 30여개 항로를 운항 중이다. 2017년에 제주항공은 서울-블라디보스토크 항공편을 개설했으며, 사할린 항공편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제주항공 마케팅부의 조히드 마마즈하노브 대표는 "우리의 방문 목적은 공항 제반시설과 사할린 관광 명소를 알아보는 것이다. 우리는 국내에서 정기 또는 전세기 운항의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라고 전했다.

사할린 지역 관광의 잠재력을 대한항공 자회사인 진에어 항공의 대표도 높이 평가했다. 현재 진에어는 국내선 5개와 국외선 22개 노선을 운항 중이며, 진에어 항공사는 항공기 보잉 737-800기와 보잉 777 기로 구성되어 있다. 진에어는 러시아로 처음 진출하여 극동지역 몇 곳과 사할린 주를 관심있게 보고 있다. 진에어 항공 박기수 영업지원팀 차장은 "오늘날 러시아 시장은 우리에게 가장 전도유망한 지역이다. 우리는 아직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방안을 더 잘 연구하기 위해 사할린의 협력자들과 긴밀한 상호관계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 두 항공사의 방문단은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을 시찰했다. 현재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은 연간 3백만 명의 승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4만㎡의 현대적 공항터미널 단지를 건설 중이며 새로운 활주로 설계에 따른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한 운송업체 대표는 사할린으로서 한국의 항공편은 가장 수요가 크다고 밝혔다.

사하바스 다부도브 공항개발 차장은 "외국인과 러시아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사할린의



독특한 자연은 흥미를 끌고 있다. 연간 관광 분야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승객 수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여러 항공사들과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러시아 시장에 진출해 있는 해외 항공사들은 공항뿐만 아니라 협력 지역의 관광 잠재력의 매력을 평가하고 있다. 관광 홍보 시 방문단은 공항의 제반 시설을 시찰 평가하고 음식, 호텔, 주요 명소들을 조사했다. 사할린 관광홍보센터의 마케팅 및 관광산업 회장인 올레시아 코라키나는 "우리에게 대한민국은 지리적인 위치, 운항 시간 관점에서 지향할 만한 시장 중 하나이다. 러시아로 여행하려는 한국인들의 관심도 커질 거라 본다. 우리는 서울에서 열리는 '코트와 KOTFA' 국제 박람회에 2년째 참가하고 있다. 2019년 가을에 한국의 6개 대형 관광기관 대표들이 사할린 관광 탐사로 방문하기도 했다."며 2020년 3월 한국 블로거들을 위한 투어 홍보가 계획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그들은 사할린에서 4일을 보내며 그들의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여행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주 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감염에 대한 안전 수칙 권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따라 재외동포들에게도 감염에 대한 안전 수칙을 권고한다.

2월26일 현재 사할린주에는 코로나19 감염 확진자는 없으나 안쿠지노바 시립병원(성인) 및 주립 아동병원(아동)을 예비 격리실로 지정하고 있다.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구급차로 호송되어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외출 및 집밖으로의 이동을 자제하고 결과 통보는 5일후로 예정하고 있다.

구급차 호출:03 또는 103
통합 비상번호:112
코로나바이러스 주요 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심각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코로나19 행동수칙
일반국민

-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히 씻으십시오.
-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십시오.
- *사람이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십시오.

고위험군(감염에 취약한 분들)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지 마십시오.
- *외출 또는 의료기관을 가야 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이 있는 사람

- *등교나 출근,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해 주십시오.
-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응급 호출을 해주십시오.
- *의료기관 방문 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시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십시오.
-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이 있었는지를 알려주십시오.
- *코로나 유행 지역 방문을 자제하시고 증상으로 격리될 경우 방역 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주십시오.

대한민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유즈노사할린스크 출장소 제공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Две корейские авиакомпании рассматривают возможности запуска рейсов на Сахалин

Представители авиакомпаний Jeju Air и Jin Air посетили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по приглашению Сахалинского туристско-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центра. Партнеры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звали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туристически привлекательным.

Флот Jeju Air насчитывает 25 лайнеров Boeing 737-800 и обслуживает почти три десятка маршрутов. В 2017 году авиакомпания открыла рейс Сеул — Владивосток, а сегодня интересуется и сахалинским направлением.

— Цель нашей поездки — ознакомиться с инфраструктурой аэропорта и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ями Сахалина. Мы рассматриваем возможность запустить сюда постоянные или пробные чартерные рейсы, — рассказа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отдела маркетинга Jeju Air Зохид Мамаджанов.

Туристический потенциал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ысоко оценили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Jin Air — дочерней компании Korean Air. Сегодня перевозчик осуществляет бюджетные перелеты по 5 внутренним и 22 транснациональным линиям. Флот компании состоит из машин Boeing 737-800 и Boeing 777. В Россию Jin Air собирается зайти впервые и рассматривает для этого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и еще несколько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регионов.

— Российский рынок сегодня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для нас самым перспективным и интересным. Рассчитываем на тесн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с сахалинскими партнерами, чтобы как можно лучше изучить это направление, о котором нам пока известно недостаточно, — отметил заместитель генерального менеджера Jin Air Пак Ки Су.

Гости из Кореи посетили аэропорт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годня здесь продолжа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овременного аэровокз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площадью 40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и пропускной способностью до 3 миллионов человек в год, ведутся работы по проектированию новой взлетно-посадочной полосы. Представители транспортного предприятия отметили, для Сахалина корейское направление входит в число самых востребованных.

— Уникальная природа островов интересна жителям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и зарубежных стран. Мы видим, как ежегодно растет спрос на туристические направления.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наш пассажиропоток будет расти, поэтому сейчас мы рассматриваем вариант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разными авиакомпаниями, — отметил заместитель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по развитию аэропорта Шахабас Давудов.

Заходя на российский рынок, иностранные авиакомпании оценивают не только возможности воздушной гавани, но и туристическую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ь потенциального региона-партнера. Во время промо-тура гости оценили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аэропорта, а также осмотрели основные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и, гостиницы, точки питания.

— Для нас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целевых рынков с точки зрения географического положения, времени перелета. Мы видим, что интерес корейских туристов к путешествиям по России растет. Второй год принимаем участие в международной выставке KOTFA, которая проходит в Сеуле. А осенью 2019 года в ознакомительном туре по Сахалину побыва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шести крупнейших туроператоров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 рассказа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отраслевой группы по туризму и маркетингу Сахалинского туристско-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центра Олеся Корякина.

Добавим, что в марте 2020 года запланирован промо-тур для корейских блогеров. Они проведут на острове четыре дня и расскажут о поездке в своих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сообщает област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12 слов, позволяющих понять культуру Кореи

Что на самом деле значит слово «доширак»? Правда ли, что в день местного ЕГЭ закрывают аэропорты? Зачем молодые корейки кривляются и сюсюкают? Почему корейцы ничего не скажут прямо, а плохие новости сообщают вечером? И с чего это кореец называет свою жену «нашей»?

Автор Мария Рязанова

1. Нунчи 눈치

Наблюдательность, сообразительность, догадливость, умение быстро додумываться о потребностях и намерениях собеседника без слов, буквально — «на глаз» или «по глазам»

Одно из самых известных и ярких выражений, неизменно попадающих в списки труднопереводимых корейских слов, и, пожалуй, ключевое для понимания принципов вербальной и невербальн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в 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 На русский его нередко переводят как «сообразительность» и л и д а ж е «смекалистость», но это отражает только одну из сторон понятия. В каком-то контексте удачным переводом с т а н е т «предупредительность», «тактичность» или «интуиция», что также не отразит всех смысловых оттенков. *Нунчи* — это способность человека быстро сканировать окружающую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ь, ментально считывая невербальный контекст (взгляды, жесты, мимику собеседника), и реагировать, учитывая различные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факторы: социальный статус, возраст (свой и собеседника) и общую атмосферу разговора. Это умение догадаться о нуждах человека, прежде чем он сам скажет о них (или даже осознает потребность), и навскидку подстраиваться под общее настроение (коллектива, семьи, дружеской компании), чутко его уловив. Это способность почувствовать, что вы пришли или позвонили не вовремя, и умение быстро и изящно закончить беседу прежде, чем человек ощутит неудобство и неловкость; это наблюдательность, благодаря которой вы заметите, что бокал вашего коллеги опустел, и одновременно понимание, кто и в какой момент должен его наполнить (с учетом всех нюансов этикета и правил, связанных с иерархией). Можно провести аналогию между *нунчи* и социальным интеллектом — с той оговоркой, что здесь мы имеем дело с высококонтекстной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ой, в которой межличностные отношения и коллективизм играют огромную роль.

Необходимость иметь и применять *нунчи* обусловлена склонностью корейцев к непрямому выражению эмоций, некатегоричности суждений, многословности, сдержанности — того требуют конфуцианские традиции, сохраняющие огромное значение в 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 Стремление открыто и многословно высказывать свое мнение, 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эмоции, скорее всего, будет воспринято корейцами как несерьезность, незрелость, легкомысленность. Взрослый, солидный человек (особенно начальник) должен уметь контролировать (то есть скрывать) свои эмоции. В таких условиях *нунчи* становится жизненно важным навыком. «У него/нее нет *нунчи*» или «У него/нее медленное *нунчи*» — крайне негативная оценка, характеризующая человека как неуклюжего в общении, нечуткого, а то и бестактного. А вот фраза «У вас быстрое *нунчи*» звучит как похвала. В то же время возможны ситуации, когда в сочетании с определенной интонацией подобный комментарий может содержать сарказм и скрытое неодобрение — нечто в духе русских слов «ушлый», «пронырливый», «подсуетился», «пролез» (то есть быстро сориентировался в ситуации и сумел использовать ее с выгодой для себя). Показательна в этом смысле ироничная поговорка «Тот, у кого есть *нунчи*, и в буддийском храме сумеет полакомиться солеными креветками». В использовании умения *нунчи* важ-



Ким Хон До (Танвон). Праздничный пир во дворе. XVIII век
Wikimedia Commons

но чувство меры, ибо в основе *нунчи* — стремление к коллективной гармонии, а не к искусному манипулированию окружающими ради личных интересов.

Отсутствие у европейцев представления о *нунчи* может стать (и становится) источником непонимания в общении с корейцами. В тех ситуациях, где представитель западной культуры сказал бы о своих потребностях прямо, кореец может ожидать от иностранца наблюдательности и догадливости, недоумевая, как же можно быть настолько лишенным *нунчи* (и в итоге, например, сам потянется через весь стол за далеко стоящей закуской). При этом обучать этим тонкостям иностранца-невежу корейцы вряд ли пожелают: как говорится, если надо объяснять, то не надо объяснять, и в этом вся суть *нунчи*.

2. Кибун 기분

Настроение, душевное состояние, самоощущение, состояние внутреннего равновесия и гармонии с миром

Словари однозначно переводят «кибун» как «настроение», оставляя за кадром культурологические нюансы, и иностранцу нужно понимать, что за этим словом стоит гораздо больше, чем просто психологическое состояние человека. В 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 это понятие теснейшим образом связано с понятиями социальной гармонии, поддержания благожелательной обстановки, сохранения лица (своего и собеседника), соблюдения нюансов иерархии и других приличий. Культура общения корейцев пронизана стремлением не нанести вреда *кибун* окружающим, в то же время не забывая и о собственном самоощущении. Сложность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состоит в том, что задеть чей-то *кибун* могут самые простые и естественные действия: прямое «нет» в ответ на предложение или отказ от совместной трапезы, излишняя настойчивость в отстаивании своей позиции, сообщение неприятной информации в недостаточно подходящий момент — то есть все то, что может привести к потере лица.

Думая о чувствах других людей и о том, что хорошие отношения важнее, чем объективная правда и честность, корейцы склонны очень мягко отказывать («Вероятно, это будет сложно», «Я подумаю и отвечу позже») и сообщать плохие новости (даже когда речь идет о бизнесе и проблемах, требующих срочного решения) ближе к вечеру, чтобы человеку было легче пережить удар и восстановить *кибун* за ночь. По тем же причинам об увольнении человеку объявят, скорее всего, в пятницу вечером.

Другое следствие заботы о *кибун* — уход от прямой конфронтации и открытого столкновения в рамках коллектива (семьи, компании). Сотрудники, испытывающие взаимную антипатию, едва ли пойдут на откровенный конфликт, а если накопившиеся противоречия все же приведут к ссоре, в глазах окружающих виновным окажется не тот, к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неправ, а тот, по чьей вине конфликт вышел на поверхность и нарушил гармонию в коллективе. Критика в адрес своих не приветствуется ради сохранности своего, чужого и коллективного *кибун*, и нередко иностранец лишь постфактум и от третьих лиц узнает, что кого-то оскорбил или повел себя некорректно. Выход один — развивать наблюдательность *нунчи* и быть внимательным к невербальным сигналам.

(Продолжение в следующем номере)

Источник: <https://arzamas.academy/mag/787-korea>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В РК количество заражённых вирусом COVID-19 достигло 1595 человек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9 часов утра 27 февраля в РК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ы 1595 заражённых вирусом COVID-19. За ночь подтверждены 334 новых случая заболевания. Об этом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Центрального штаба противозидемических мер. Из 334 новых случаев заражения 307 приходится на Тэгу. Таким образом, в этом городе накопленный показатель составил 1.017 заражённых. Это максимальный показатель по стране. Большинство из них связаны с сектой Синчхонджи. В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Пукто к настоящему моменту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 321 случай заражения, в Пусане – 58, в Сеуле – 55, в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 55, в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Намдо – 36, в Кванчжу – 9, в Тэчжоне – 8, в провинции Чхунчхон-Пукто и Чхунчхон-Намдо по 7, в Ульсане и провинции Канвондо по 6, в Инчхоне и провинции Чолла-Пукто по 3 случая, на острове Чечжудо – 2, в Сэчжоне и провинции Чолла-Намдо по 1 случаю.

Власти РК намерены принять жёсткие меры по борьбе с вирусом COVID-19

Южнокорейские власти намерены предотвратить дальнейше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вируса COVID-19 с помощью закрытия Тэгу и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Пукто. Об этом было заявлено во вторник на совместном заседани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К, правяще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ечь идёт о создании эффективной противозидемической сети, а не об ограничении передвижения. Также решено рассмотре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нятия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бюджета до 17 марта, когда завершается работа февральской сесси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На случай трудностей в работе парламента решено рассмотре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движения бюджета специальным президентским указом по финансовым вопросам, который допускается в экстренных ситуациях. Половину производимых медицинских масок решено отправлять в местны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и почтовые отделения в целях обеспечения стабильных поставок данного товара. Часть из них будет безвозмездно передана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уязвимых слоёв общества в Тэгу и уезде Чхондо-гун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Пукто. Экспорт масок ограничивается 10% общего объёма производства.

30 стран ввели ограничения на въезд иностранцев, побывавших в РК

Количество стран, которые ввели ограничения на въезд иностранцев, побывавших в РК, увеличилось до 30. На сайте посольства Индии в РК появилась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м, что прибывающие в Индию из РК могут быть помещены в карантин. Местные власти призвали своих граждан воздержаться от туристических поездок в РК. Филиппины с 26 февраля ввели полный запрет на въезд иностранцев, побывавших в южнокорейском городе Тэгу и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Пукто, где зафиксировано наи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инфицированных вирусом COVID-19. 17 стран и регионов ограничивают въезд иностранцев из РК. 13 государств ужесточили карантинный режим в отношении прибывающих из РК.

Южнокорейские военные принимают меры борьбы с вирусом COVID-19

Как сообщил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управление по учёту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приостановить работу призывных комиссий в период с 24 февраля по 6 марта. Вопрос о возобновлении работы будет решаться исходя из развития ситуации с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вируса COVID-19. Таким образом, откладывается проверка годности к службе в армии 16.700 человек. Между тем,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в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ах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11 случаев заражения вирусом. Военное руководство принимает усиленные меры профилактики заболевания. В карантин помещены 7.700 человек, в том числе 6.400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которые после 10 февраля посещали города Тэгу, Ёнчхон и уезд Чхондо-гун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Пук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выделит более 10 млн долларов на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мире

В этом го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выделит 12 млрд 600 млн вон или 10 млн 300 тыс. долларов на программы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мире. Это на 90% бол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план был объявлен 24 февраля министерством образования.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прошлый год, в 1635 школах в 30 странах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зучали 145 тыс. учеников. Министерство планирует к 2022 году увеличить показатель до 2 тыс. школ и 40 стран. Власти оказывают помощь в создании курсов по преподаванию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Гватемале, Дании, Латвии, Руанде, Шри-Ланке, Афганистане, Чехии, Турции, а также в тестовом режиме в Мьянме, Лаосе, Камбоджи и Туркменистане. К 2022 году количество учителей для таких курсов будет увеличено со 132 до 200. (РКИ)

Как коронавирус изменил привычки корейцев

Начавшаяся в Южной Корее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назад резкая вспышка коронавируса COVID-19 продолжает накручивать счетчик заболевших, доведя его уже до 833 при семи умерших. Инфекция также скалалась на стиле жизни корейцев, которые начинают привыкать к новым правилам.

Еще примерно неделю назад в Южной Корее были надежды, что коронавирус COVID-19 так и останется исключительно "китайским", позволив Стране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отделаться легким испугом. Еще 18 февраля в стране был всего лишь 31 заболевший, смертей инфицированных не произошло и стали появляться те, кто одолел вирус и выздоровел. Однако с 19 февраля последовала резкая вспышка, которая довела число больных, по данным на вторую половину дня 24 февраля, до 833. Заявлено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и о семи скончавшихся, для которых COVID-19 стал может и не главной, но одной из причин смерти.

Как сообщили в понедельник в ходе утреннего и вечернего брифингов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за сутки число заболевших увеличилось еще на 231 человек.

При этом продолжает проследиваться закономерность, которая стала очевидна как раз с 19 февраля: основным очагом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является юго-восток страны, а именно четвертый крупнейший город Южной Кореи Тэгу, где проживает 2,4 млн населения, а также окружающая мегаполис провинция Северный Кёнсан. Из 833 зараженных на регион Тэгу-Северная Кёнсан приходится 681 больной или более 80 процентов всех инфицированных.

При желании можно назвать и более точный очаг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инфекции COVID-19 в Корею: им стала базирующаяся в Тэгу секта Синчхонджи, среди прихожан которой и началось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вируса, чему в немалой степени способствовали особенности проведения молитв, когда прихожане стоят на полу на коленях рядом друг с другом и держат за плечи соседей.

Эксперты сначала указывали на 61-летнюю женщину из числа прихожан как на возможную главную "заразительницу" в самой церкви, но теперь уже чиновники стали признавать, что только она вряд ли могла устроить подобную вспышку. Скорее всего, среди верующих уже было значительное количество зараженных, а ее болезнь лишь дала повод начать проверки среди прихожан Синчхонджи.

Проблема же в том, что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медики пока так и не могут понять, откуда пошло заражение и сколько им еще ожидать инфицированных. Диагностические лаборатории работают на полную мощность, а медперсонала уже не хватает. Кроме того, все больше и больше заражений среди врачей и медсестер, которые в эти дни работают на износ.

Есть и другая проблема: несмотря на все усилия, вирус COVID-19 продолжает распространяться по стране из Тэгу, который за концентрацию больных уже получил негласное прозвище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Уханя". Причина кроется как в самой церкви-секте Синчхонджи, у которой 12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 по Южной Корее и более 200 тысяч верующих, так и в неизбежном для динамичной и развитой страны активном движении населения.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уже во всех крупных регионах и городах Кореи зафиксированы случаи заражен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в итоге объявило наивысший уровень угрозы в связи с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инфекции, а Тэгу и провинция Северная Кёнсан провозглашены "зонами особых мер".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главной задачей властей и медиков является удержание COVID-19 в рамках уже обозначенного очага на юго-востоке и не допустить полноценног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по всей стране. К вечеру понедельника стало понятно, что число инфицированных перестало увеличиваться в разы каждый день. Крайне важными, по мнению экспертов, являются ближайшие десять дней. Именно они покажут, удалось ли сдержать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инфекции.

Многие специалисты предсказывают возможность новой волны, которую могут занести в страну обучающиеся в корейских университетах студенты из Китая. Их насчитывается более 70 тысяч. Несмотря на призывы

врачей и ряда вузов, власти Южной Кореи не пошли на запрет въезда им, попросив университеты обеспечить меры по отдельному проживанию граждан КНР от остальных учащихся. В вузах это раскритиковали, но подчинились, продолжая надеяться на лучшее.

Корейцы же за прошедшую неделю стали привыкать к новому образу жизни. Паники в стране нет, но очевидно, что определенное влияние COVID-19 оказал на общую ситуацию. Повсеместно отменяют массовые мероприятия, включая концерты, конференции, митинги. Власти ввели запрет на проведение демонстраций, попросив подождать с выражением политических предпочтений до более удачного времени. Резко возрос спрос на маски, средства личной гигиены. Повсеместно можно увидеть призывы тщательно мыть руки, использовать маски и прикрывать рот при чихании.

Маркетологи уже фиксируют изменения в поведении покупателей. Опасаясь заражения, корейцы стали в массовом порядке заказывать еду и прочие товары исключительно по интернету, избегая посещения крупных торговых центров. Местные жители, которые в целом не прочь при случае пропустить по рюмочке, стали переносить застолья из баров домой, из-за чего спрос на покупаемую в местных мелких магазинах и лавках корейскую водку "сочжу" возрос более чем на 29 процентов, а на пиво – почти на 24 процента.

Временами можно услышать о закрытии тех или иных магазинов, торговых центров, гостиниц.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это происходит в том случае, если там будет выявлен случай нахождения инфицированного COVID-19. Здание после этого тщательно дезинфицируют.

Вирус добрался и до политиков. В понедельник был в экстренном порядке закрыт весь комплекс парламента страны в Сеуле, а все заседания депутатов отменены. Выяснилось, что несколькими днями ранее в парламенте была конференция, где присутствовал зараженный COVID-19 человек. Теперь многие видные политики с опаской ждут результатов своих анализов, а парламент не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как минимум до 26 февраля. Если же инфекция подтвердится и у депутатов, то нельзя исключать введения жесткого карантина в отношении всех народных избранников, длительной изоляции комплекса парламента, а в перспективе и переноса всеобщих выборов, которые запланированы на 15 апреля.

Правда, как признают многие чиновники и эксперты, пока еще далеко не все осознали необходимость соблюдения новых правил. Несмотря на призывы и увещевания, некоторые обще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заявляют, что продолжат проведение митингов и демонстраций, считая, что COVID-19 – лишь предлог для ограничения их законных прав и свобод. Хватает и тех, кто игнорирует рекомендации часто мыть руки и носить маски. Достаточно и тех, кто уверен, что COVID-19 "со мной точно не может случиться", не торопясь уведомлять экспертов даже при наличии признаков инфицирования, считая, что у них-то "точно обычная простуда". Возможно и из-за этого вирус пока продолжает распространяться по Корею.

Сама же страна превратилась в безусловного второго "лидера" в мире по количеству инфицированных, уступая лишь Китаю.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стоит признать, что пока об эпидемии речь не идет, а ситуация балансирует на грани между новым скачком количества заболевших и "отката" инфекции, когда можно будет говорить о спаде волны COVID-19.

В любом случае, за прошедшую неделю в Южной Корее ситуация действительно заметно изменилась. Это заставило ряд стран ввести предупредительные меры.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15 стран ввели те или иные ограничительные меры в отношении тех, кто приезжает из Южной Кореи. Это касается, как правило, как самих граждан Кореи, так и иностранцев, которые следуют транзитом через Страну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Меры варьируются от полного запрета на въезд пассажиров из Кореи до разного рода мер по карантину или наблюдению со стороны врачей. Корейцев, конечно, это уязвляет, но большинство все же относятся с пониманием к подобного рода практике.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К)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0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95 руб. 15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Сахалине завершился этап Кубка мира по паралимпийскому горнолыжному спорту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закрытия масштабных соревнований прошла 22 февраля на нижней площадке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Горный воздух». В течение двух недель свое мастерство в слаломе, слаломе-гиганте, супергиганте, параллельном слаломе и скоростном спуске здесь 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40 спортсменов из десяти стран. Наибольшее число медалей завоева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оссии, Швейцарии и Франции – 26, 16 и 12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Как и во время открытия соревнований главной сюжетной линией финальной церемонии стала история девочки Даши, которая мечтает стать спортсменкой. Она, преодолевая страхи, идет к вершине. К ней героиню постоянно движет желание победить. Завораживающую историю юной горнолыжницы, которую транслировали на большом экране, сопровождали выступления вокалистов и танцевальных коллективов. Яркие акробатические трюки в горнолыжной экипировке представили воспитанники батутного спорта. Особенный колорит церемонии придали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ие выступления народного театра «Радостя» под композицию «Валенки». В финале сюжетной линии главная героиня и Хозяин Горы появились уже перед публикой.

– Хозяин Горы, ты помнишь? Ты говорил, что Сахалин – удивительное место! Теперь я в этом уверена! Это место, где сбываются мечты, и попав сюда, ты уже никогда не будешь прежним! Мы гордимся спортсменами, которые сделали невероятное, преодолели себя! – обратилась к собравшимся девочка.

Сразу по окончании вводной части церемонии российские спортсмены, члены сборной команды страны, призёры и победители этапа Кубка мира по Всемирному паралимпийскому горнолыжному спорту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ередали флаг почетному караулу. Как только прозвучал гимн, и стяги России и Паралимпийского движения оказались на флагштоках, слово взял почетный гость.

– Дорогие судьи, спортсмены и гости, которые приехали на Сахалин. Я с огромным удовольствием поздравляю вас от имени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России, от имени исполкома Паралимпийского комитета. Это были великолеп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блестящая организация. И сейчас можно сказать о том, что Сахалин достоин того, чтобы проводить соревнования самого высокого уровня, в частности чемпионат мира по горным лыжам, – сказал почетный вице-президент Паралимпийского комитета России Лев Селезнев.

– Все получилось, потому что Сахалин – единая команда, – поддержал выступление гостя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Я благодарю всех, кто помог успешно провести эти соревнования. Огромное спасибо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Паралимпийскому комитету и Паралимпийскому комитету России за оказанное региону доверие и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нять этап Кубка мира на островной земле. Благодарю всех, кто создавал уютную атмосферу в городе, кто обеспечивал безопасность болельщиков, спортсменов, судей и гостей нашего региона.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волонтерам и персоналу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Горный воздух» за колоссальную работу по подготовке трасс и организации соревнований.

И, конечно же, благодарю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за волю к победе и зрелищные выступления.

Сразу после этого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бъявил этап Кубка мира по Всемирному паралимпийскому горнолыжному спорту «Сахалин-2020» закрытым. Под гимн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аралимпийского комитета полотно, символизирующее движение, сняли, и торжественно передали главе региона. «Парадом Дружбы» зрителям еще раз напомнили обо всех странах,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торых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этапе Кубка мира.

– Я впервые был в России и впервые был на Сахалине – замечательном острове, – отметил параспортсмен из Италии Джакомо Бертаньоли. Конечно, все мы приезжали сюда соревноваться, бороться за медали. Но в душе останется не только это. Прекрасная природа, отзывчивые люди, атмосфера единения – вот так буду вспоминать далекий остров. И если соревнования будут вновь проводиться здесь, я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приму в них участие.

Завершился праздник выступлением специальных гостей – группы «Мохито» из Москвы.

Напомним,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первые принимала этап Кубка мира по паралимпийскому горнолыжному спорту. Награды оспаривали спортсмены из США, Норвегии, Франции, Австрии, Польши, Италии, Швейцарии, Финляндии, Словакии и России. Это участники, призеры и победители Паралимпийских игр.

Дед Мороз, Джокер и Царь морской испытали рыбацкую удачу на «Сахалинском льду-2020»

Массов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подледному лову в этом году собрали около 600 рыбаков-любителей и прошли на острове уже в 9 раз. По традиции они развернулись на реке Найба Долинского района – сюда, несмотря на мороз, прибыла 141 команда. Почетным гостем нынешнего рыболов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стал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сель-

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РФ – руководитель Росрыболовства Илья Шестаков.

– Сахалин вперёд! Уверен, у вас сегодня всё получится. Удачного клёва! – сказал, открывая состязания, Илья Шестаков.

Обращение рыбакам-любителям направил и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Приветствую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и гостей фестиваля «Сахалинский лёд-2020»! Проводить на реке Найба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любительской рыбалке – стало хорошей и доброй традицией, которая из года в год привлекает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а также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Да иначе и быть не может, ведь это один из самых популярных зимних видов отдыха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Сегодня на лёд за рыбацкой удачей пришли целые семьи, дружные команды единомышленников, и я от всей души желаю вам победы, больших уловов, а всем зрителям отличного настроения и незабываемых впечатлений от фестиваля!

В отборочном этапе «Сахалинского льда» участвовали команды, в состав которых вошло по 4 человека. В борьбе за главный приз первого тура – 50 тысяч рублей – рыбаки объединились с коллегами по работе, друзьями и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В течение получаса им нужно было поймать максимальное количество наваги – судьи учитывали вес улова. Многим не хватило времени, чтобы раскрыть свой потенциал, поэтому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выполнения задания была увеличена в 2 раза.

Важное условие – размер рыбы не должен быть меньше 19 сантиметров. Кроме того, в «арсенал» соревнующихся вошло ограниченное количество орудий и вспомогательных средств – пакет, линейка, удочки, ледобур, стул, черпалка и прикормка. Наталья Шурыгина из Долинска – постоянная участница праздника – считает, что этого вполне достаточно для продуктивной рыбалки.

– Приехали сюда всей семьей – мама, брат, сестра и дочка. Ведь для нас «Сахалинский лёд» важнее Нового года. Здесь очень доброжелательная атмосфера, люди все улыбочивые, ведущие отличные, музыка яркая. Всё нравится. Участвую в этих состязаниях уже в восьмой раз. Даже занимали призовые места в отдельных категориях. Надеюсь и в этот раз победить, – поделилась женщина.

На командном этапе состязаний также поучаствовали люди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Для них предусмотрели специальный сектор с заранее пробуренными лунками.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подледному лову стали для участников еще и способом выплеснуть свою творческую энергию. Некоторые любители рыбалки прибыли на чемпионат в костюмах известных персонажей – Джокера, Царя морского и Микки Мауса. А Иван Шевченко – представитель коллектива «Рюкзачки» – состязался в образе Деда Мороза.

– Знаете, я никогда не думал, что искусственная борода так хорошо согревает лицо. Теперь буду её надевать и во время обычной рыбалки. Но главное в моем образе – это большой красный мешок. В него я помещу весь свой улов и, может быть, кому-нибудь сделаю подарок в виде свежей наваги, – подчеркнул Иван Шевченко.

Самой зрелищной частью «Сахалинского льда» стал второй тур состязаний – рыбацкий биатлон. К нему допустили участников лучших 50 команд первого этапа – мужчин и женщин. Им предстояло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пройти 4 зоны и в каждой поймать навагу. Победителя на финише ждало 100 тысяч рублей. Главный приз завоевали Виктория Югай и Дмитрий Дидковский.

А победителями командных соревнований стали коллективы «Любители» и «Северная рыбка». Приз «За самую крупную рыбу» взяла Маргарита Лях. «Самым молодым участником состязаний» оказался четырехлетний Ярослав Лаптев, а «Самым колоритным» – Тарас Дударев. Награду за богатый опыт унесла Антонина Горбунова.

Напомним,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Сахалинского льда» выступают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областное агентство по рыболовству. Ежегодно на Найбе собираются около 1 тысячи участников. География соревнований давно перешагнула границы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 рыбацком мастерстве на «Сахалинском льду» состязаются участники с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з Москвы, Подмоскovie,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Хакасии, Крыма.

11 сахалинских проектов получили грантовую поддержку от Президента

Итоги конкурса, направленного на развитие гражда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подведены в Москве. Сахалинские некоммерческие обще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НКО) на средства президентских грантов будут развивать конный спорт, займутся экологическим воспитанием дошкольников и пропагандой грудного вскармливания, проведут учебно-тренировочные сборы для подростков, соберут предметы первой необходимости для жителей удаленных сел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Надежда» на средства гранта проведет «Фестиваль профессий». Это профориентационный интенсив для детей с инвалидностью в возрасте от 12 до 18 лет.

– Сегодн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живает более двух тысяч таких ребят. Ограничения не всегда позволяют им принимать участие в массов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п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ориентации, которые организуют для их сверстников. Проект поможет исправить ситуацию, – поясни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проекта Элла Гуцина. – Мы планируем охватить не менее 35 ребят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а также их родителей, неравнодушных граждан. Важно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н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постоянной и систематической работы с подростками с инвалидностью в момент становления личности.

Патронажная служба «Родные люди» продолжит реализацию проекта «Сувенирная мастерская: на краю света». Еще в августе 2018 год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чал работу Центр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и досуга для молодых инвалидов. Там создали мини-типографию, в которой под присмотром наставников работают люди с инвалидностью ментального характера. Стартов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организация приобрела на свои средства и благодаря субсидиям. В 2019 году, уже при поддержке Фонда президентских грантов, в мини-типографии появилось нов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 2 лазерных гравировальных станка и 3D-принтер, с помощью которых люди с инвалидностью научились делать сувенирную продукцию, посвященную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На средства гранта хотим приобрести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Задача в том, чтобы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 людей с инвалидностью могли трудоустроиться. Инвалиды должны чувствовать себя нужными и получать удовлетворение от своего труда, – говорит автор проекта Светлана Петелина.

Региональное отделение Общеросси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оюз пенсионеров России» на средства гранта проведет областной чемпионат по компьютерному многоборью среди пожилых островитян. Сначала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оведут в муниципалитетах. Победителей в мае этого года пригласят на региональный этап. Первый подобный чемпионат на островах проводили в 2015 году. Тогда в не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15 пенсионеров. В прошлом году было уже 60 участников.

– Важно, чтобы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таршего возраста повышали свою социальную активность, поддерживали и налаживали новые дружественные связи среди сверстников, в том числе с помощью сети Интернет. К тому же будет замечательно, если большее число пожилых людей с легкостью сможет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получать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услуги, нажав лишь несколько клавиш, – отмечает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Союза пенсионеров России» Илона Волошина.

В общей сумме сахалинские проекты по линии президентских грантов получат около 17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Прием заявок на очередной конкурс стартовал 26 февраля 2020 года. Проекты можно представить до конца марта. Условия и порядок проведения, а также требования к участникам конкурса размещены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оператора конкурса: президентскиегранты.рф.

«Гринландия» приглашает к участию в конкурсе социальных видеороликов

С 16 по 19 июля 2020 года в Киров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йдет Всероссийский фестиваль авторской песни «Гринландия».

Уже стало доброй традицией, что мероприятия Фестиваля проходят круглый год, и с каждым новым сезоном заочных конкурсов, творческих встреч, выставок и дискуссионных площадок становится все больше. Новый фестивальный сезон, апофеозом которого станет большой песенный праздник на берегу реки Быстрицы, открылся конкурсом социальных видеороликов «Я люблю тебя, жизнь» для детей от 8 до 18 лет.

В этом году – новые номинации, а значит – новые идеи для творчества. Участникам предстоит выбрать тему среди пяти номинаций:

- «РДШ – дорога в будущее»;
- «Свободная тема – Я люблю тебя, жизнь»;
- «Служить Отчизне»;
- «Все работы хороши – выбирай на вкус»;
- «Мы в ответе за тех, кого приручили».

Основная задача конкурса видеороликов – предложить ребятам порассуждать на тему нравственности и патриотизма в форме, которая им близка, поделиться своим пониманием процессов, происходящих в стране и мире, в своем городе и семье, – отметил организатор и идейным вдохновитель фестиваля «Гринландия» депута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РФ Олег Валенчук. – Как показали предыдущие конкурсы, все ролики очень искренние, при этом работы юных режиссеров созвучны с основными идеями фестиваля «Гринландия».

В 2019 году в конкурс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1569 мальчиков и девочек со всех уголков России. Они со все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подошли к съемкам, в результате получились настоящие мини-фильмы на актуальные темы, которые касаются каждого из нас.

Работа может быть как индивидуальной, так и коллективной. К участию в конкурсе приглашаются студии, клубы и другие творческие объединения. Итоги будут подведены 30 апреля, а победители получат ценные призы. Приз зрительских симпатий конкурса составляет 20 тысяч рублей. Подробности можно узнать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http://на.официальном.сайте) Фестиваля авторской песни «Гринландия».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유학생활

Если вы знаете языки, вы везде будете как дома.
언어를 할 줄 알면, 어디든 집이다.
With languages, you are at home anywher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바실레바 발레리아라고 합니다. 태평양국립 대학교의 3학년생이며, 나이는 20살이고, 전공은 《해외 지역연구》입니다. 제 1 외국어는 중국어입니다. 그런데 한국 대중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어도 배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유 시간에 자막이 있는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책도 읽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공부하려고 한국교육원에 다녔습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많아서 한국어 자료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과 함께 한국어 과외수업을 합니다. 작년에 한국어 실력을 늘리기로 마음먹어서 서경대학교의 학생교환프로그램으로 8월에 한국에 공부하러 갔습니다.



다. 이 과목은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과목 중 하나였습니다. 작문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학기 동안 다양한 제목에 관한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학기 말에는 한국어 능력시험 과제를 공부했습니다. 남은 과목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드라마 수

업에서 우리는 직접 시리즈를 촬영했습니다. 저는 다른 학생들 중에서 최고였습니다. 선생님도 저를 칭찬했습니다. 또한 생활 속의 한국어 수업시간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노래를 듣고 뮤직 비디오를 봤습니다. 특별히 아침에 이 노래들은 우리의 기분에 생기를 주었습니다.

교육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는 화, 수, 목요일에만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모든 다른 날에 쉬거나 러시아 과제를 했습니다. 주말에 보통 산책하러 명동과, 홍대와 동대문 지역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길거리 음식을 먹고, 쇼핑을 하고 유명한 가수의 노래도 들었습니다. 그 지역들의 분위기는 다르고 정말 놀라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면 한식은 제 입에 너무 매웠습니다. 우리는 카페나 식당에 갔을 때 제가 오랫동안 요리를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음식을 선택 하는 것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돈까스, 칼국수, 김밥과 찜닭이었습니다. 그 요리는 맵지 않거나 약간 매웠습니다. 기숙사에서 자주 짜장면과 치킨을 배달시켰습니다.

우리는 유학생활이 끝날 무렵 너무 슬펐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유학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경험도 할수 있었습니다. 올 봄에 한국어 능력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저는 계속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실레바 발레리아,
태평양국립 대학교 3학년생

윈도우 유감

마이크로소프트사(MS)가 1월 14일을 끝으로 '윈도우 7'에 대한 기술 지원을 중단하였다. 윈도우 7을 사용하는 PC는 앞으로 보안 업데이트(패치)를 받을 수 없어 해킹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로 발견된 보안 취약점을 막는 패치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윈도우 7은 이제 이 패치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이다. 원래 출시할 때 10년간만 기술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개발자는 원래 완벽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했지만 해킹 기술 또한 발달하기에 문제가 생길 때 마다 이에 대처하는 패치프로그램을 내놓게 되는 것이다. 어찌 보면 이용자들은 완벽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 써 온 셈이다. 이것은 MS의 윈도우가 한국에서 독점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조기조, 경영학박사

OS(Operating System; 운영체제)는 컴퓨터와 주변 기기를 작동시키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80년대의 성능이 낮은 초기 PC에서는 메모리조차 작아서 플로피 디스크에 저장된 OS를 넣고 컴퓨터를 켜면 읽어 들이고 컴퓨터를 끄면 사라지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DOS(디스크에 담은 OS)라고 불렀고 컴퓨터의 작동에 필요한 명령문을 일일이 입력해야 일을 시킬 수 있었다. 그러다가 PC의 성능이 좋아지고 메모리가 늘어나면서 메인 메모리에 심겨 나왔고 명령문을 입력하는 대신에 그림을 보고 작업을 시킬 수 있게 된 GUI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때 DOS에서 윈도우라는 이름을 바꿔 달게 된 것이다.

2001년 8월 24일에 발표한 윈도우 XP는 2014년 4월 8일까지 지원했다. 이후, 윈도우 비스타, 윈도우 7, 윈도우 8, 윈도우 8.1을 발표하였고 윈도우 9는 건너뛰고 2015년 7월 29일, 오늘날의 최신버전인 윈도우 10까지 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2017년 말까지 이전의 버전을 무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는 애플이 먼저 만든 GUI 방식의 MAC OS를 보고 충격을 받아 만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일단은 윈도우 7을 계속해서 쓰면 위험이 높다. 그렇다고 당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PC는 수명이 있다. 성능이 자꾸 좋아지고 가격은 내려 4~5년 된 PC는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이 가정에서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PC는 20만원이 넘는 윈도우 10을 깔고 새로 구입해도 100만 원 이하이다.(아주 싼 조립 PC도 있다.) 그 사이 윈도우 10으로 교체하지 않았다면 보호나라 홈페이지(<http://www.boho.or.kr>)에서 무료인 '구름 OS', '하모니카 OS' 등 국산 개방형 OS를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지만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안 그러면 윈도우 10을 구입하거나 그것도 부담스러우면 인터넷의 사용을 가급적 줄이고 확실한 사이트, 확실한 메일만 받아야 한다. 필요없다면 네트워크 연결을 해제하는 것도 좋다. 브라우저는 익스플로러보다 크롬을 사용하는 것이 낫겠다. 이는 사용해 본 경험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다.

우려되는 것은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사진 포함)이 해커의 랜섬웨어에 걸려 몸값을 주고서야 해독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인데, 모든 파일을 그때그때 USB 메모리 등에 따로 백업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PC를 교체할 때까지 그렇게 쓰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도 백신 프로그램은 반드시 설치하여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고 수시로 바이러스 검사를 해야 한다. 열 명이 지켜도 도둑하나 막기 쉽지 않다는 말이 있다. 참, 갑자기 내 PC가 윈도우 7인지 아니면 버전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모니터의 좌측 하단에 위치한 윈도우(창 모양) 버튼을 누른 후 돋보기가 보이는 검색창에 'winver'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된다.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사는 OS로 큰돈을 벌었다. 돈 벌어 좋은 일에 쓰고는 있는데 한 때 위기를 맞았다. 이 위기는 어쩌면 지속될지도 모르겠다. PC와 서버용 OS에 안주하다가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기기용 OS를 놓쳤다. 구글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웨어러블 기기 등의 대표적인 OS, 안드로이드를 먼저 만든 것이다. 데스크톱 PC의 판매는 줄고 있다. 모든 것이 스마트폰 같은 휴대기기로 옮겨가고 있다. 심지어 TV나 자동차의 지능서비스도 안드로이드 용이다. 검색으로 구글이 클 때도 자만하고 있다가 뒤늦게 놀라 Windows Live Search(옛 MSN 검색)란 검색 엔진에 힘을 쏟아 Bing(bing)을 만들었다. (여유)있을 때 잘해야 한다. 윈컨대, MS는 아직 윈도우 10으로 갈아타지 못한 사용자들에게 아주 싸게 공급하면 좋겠다. 배려가 결국에는 득이 될 것이라 믿는다.

러시아 카잔연방대서 '독도는 우리 땅' 특강

고영철 교수, 독도와 동해 영상 통해 독도가 한국 땅인 이유 설명

2월 22일 러시아연방 따타르스탄공화국 카잔연방대학교 국제관계대학에서는 고영철 교수의 한국학 특강이 있었다.

고 교수는 한국국제교류재단(KF)에서 파견돼 이 카잔연방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날의 주제는 '동해와 독도'였으며 카잔연방대 한국학 동아리 학생들 따따르한글학교(교장 김영숙) 교사와 학생 100여명이 참석했다.

따따르한글학교는 카잔지역 12개 대학, 중등학교 20개 학교 학생과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교사는 대학교수와 카잔연방대에 유학하고 있는 한국인으로 구성돼 있는 학교다.

강연에서 고영철 교수는 주러대사관이 제공한 독도와 동해 영상을 보여주며 독도가 한국땅인 이유를 설명해 나갔다.

국제법적 그리고 상식적으로 무인도는 가까운 나라의 영토다. 15세기 세종대왕시대에 만들어진 '세종실록 지리지'의 울진현 부분에 독도가 명기돼 있다. (于山武陵二島在縣正東海中 二島相去不遠 風日清明 則可望見)

이에 반해 일본 정부는 1904년 2월 8일 러-일 전쟁을 일으킨 후 동해에서 러시아 함대의 동태를 감시하는 해군 망루를 독도에 세우기로 했고 그 후 1905년 1월 28일 일본 정부는 독도가 한국 땅임을 알면서도 '무주자'라고 전제하고 일본 내각 회의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했다.



그리고 이름을 '다케시마'라 하고 시마네현으로 편입한 것을 근거로 주장하고 일본 땅임을 주장하고 있다.

고 교수는 이날 강의에서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 영토라는 것과 현재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동해' 지명 표기도 국제적으로 '일본해'라고 표기하고 있는 것이 우세하지만 한국 영토에서의 지형적 위치로 볼 때 동쪽에 위치한 바다이기 때문에 '동해' 표기가 타당하다"고 청중들에게 설명했다. (재외동포신문)

이모저모

(2면의 계속)

Участников ждут творческие и кулинарные состязания, а также турнир по северному многоборью. Коллективы придут из Охинского, Смирныховского, Тымовского,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го, Поронайского районов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ткрытие праздника состоится в районном центре досуга. А конкурсные площадки расположат на реках Тымь и Ноглинка.

К фестивалю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присоединятся национальные коллективы, сольные исполнители, мастера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художник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этнокультурных центров, родовых хозяйств и общин. Они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в большом концерте и ярмарке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Особые требования у жюри будут к участникам кулинарного конкурса. Судьи оценят эстетичность оформления стола, ассортимент, вкус, цвет, запах, а также оригинальность блюд.

А в рамках северного многоборья островитяне посоревнуются за звание лучших в прыжках через нарты, тройном национальном прыжке, беге с палкой по пе-

ресеченной местности, метании топора и тынзьяна. Кроме того, попробовать свои силы сахалинцы смогут и в других видах спорта — стрельбе из лука, перетягивании каната и национальной борьбе.

Победителей национальных конкурсов ждут медали, грамоты и подарочные сертификаты. Ожидается, что фестивальные состязания соберут 140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오하, 제 10 회

<북방 수도의 별들> 축제 준비

무용술 경연대회 <춤추는 섬>이 제 10회 민속창작축제 <북방 수도의 별들> 일환으로 오하시에서 개최된다.

3월 14일 11시에 경연대회가 시작되고 갈라공연과 시상식은 15일 14시에 진행된다.

지역 문화회관 사이트에 공지된 경연 규정에 따라 이 경연에는 아동, 청소년 및 청년 무용단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의 연령별 4그룹은 7세-9세, 10세-12세, 13세-15세 및 16세-18 세로 나뉘어 발표한다. 경연 부문은 <현대 춤>, <가극 군무>, <거리 댄스쇼>, <민속 춤>, <실험 춤> 등이다. 경연은 지역문화회관 무대에서 펼

쳐져며 입장권은 지역 문화회관 매표소에서 받을 수 있다.

В Охе готовятся к проведению X фестиваля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Звезды северной столицы"

Конкурс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ого искусства "Танцующий остров" в рамках X фестиваля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Звезды северной столицы" пройдет в Охе.

14 марта состоится выступление его участников. Начало — в 11 часов. Гала-концерт и церемония награждения победителей начнутся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в 14 часов.

Согласно конкурсному положению, опубликованному на сайте районного дворца культуры, в творческом состязании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детские, юношеские и молодежные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ие коллективы. Выступать они будут в четырех возрастных категориях — 7-9, 10-12, 13-15 и 16-18 лет. Предусмотрены следующие номинации: "Современный танец", "Эстрадный танец", Street dance show, "Народный танец", "Экспериментальный танец".

Конкурс пройдет на сцене районного дворца культуры. Вход по приглашительным билетам — их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в кассе РДК.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에서)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и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ские женщины» приглашают на праздничный концерт, посвященный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женскому дню 8 Марта, который состоится 7 марта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В программе:

1. Торжественная часть
 2. Концертная программа
 3. Фуршет
- Начало концерта в 15:00
Вход свободный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Ваш сервис для заказа вкусной еды

Наши преимущества:

- У нас большой выбор заведений
-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 Популярные блюда



- Информация о скидках и акциях в заведениях
- Понравившийся заказ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 Сортировка заведений по отзывам и рейтингу



91 ЗАВЕДЕНИЕ



684 200 ЗАКАЗОВ



105 8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28 075 ОТЗЫВОВ

Вы можете заказывать



на сайте eda.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eda.sakh.com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0-3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